<사랑의 서약 > Ver 1.0

신랑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당신 ☺☺☺을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 보다는 둘이 함께 일 때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당신에게 다짐합니다.
지금 이순간의 다짐을 평생 기억하며
나보다는 당신을 먼저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나 신랑 ☺☺☺은 신부 ☺☺☺을 아내로 맞아 언제나 온유하게 바라보며, 뜨겁게 사랑하고 ,
평생 함께하며 아플 때 아픔은 같이 나눠 없애고,
기쁠 때 기쁨을 함께하며, 언제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자리에서
평생 한 여자를 사랑하는 ☺☺☺ 만의 남편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20 년 월 일 신랑 ☺☺☺

신부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맺는 부모님과의 만남,
학교에 입학하며 맺는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당신처럼 완벽한 남자☺☺☺ 는 없을 것입니다.(약간 뜸을 들인 후 ^ ^)
우리의 만남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며 평생 영원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나 신부 ☺☺☺은 신랑 ☺☺☺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온유하게 바라보며 또 사랑하며 또 의지하며, 또 당신의 아내이자 연인이 되어 힘들때 힘이 되어주는 아내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20 년 월 일 신부 ☺☺☺

<사랑의 서약> Ver 2.0

신랑

그대의 평생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대를 지켜 주겠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 한 후 연애 시절에 느꼈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온유하게 바라보고 인내하며 지금보다 더 노력 하고 애쓰겠습니다.
땀 흘리며 참고 가꿀 것입니다.
늘 그대에겐 푸르른 숲 같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 황영민은 여러 어르신과 친지. 지인들의 축복 속에 그대 OOO를 아내로 맞아 백년의 예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는 날들이 물 흐르듯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당신 앞에 서서 영원한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눈높이에서 언제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식에게 존경 받는 신의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양가 부모님과 하객을 모신 이 자리에서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신랑 OOO

신부

약속합니다. 일생을 당신과 함께할 것을..
기쁘고 행복한 순간, 즐겁고 달콤한 일들만
나누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슬프고 괴로운 순간, 험하고 쓰디쓴 일, 하염없이 지루한 일상을 당신과 함께 나눈다는 약속입니다. 처음 당신을 만나 사랑할 때의 기억도 소중하지만 살아가야 할 더 많은 젊은 날이 있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익히고 가꿀 사랑도 소중합니다. 일생을 당신과 함께 한다는 이 약속으로
나는. 당신에게. 나의 삶을 연결합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사양치 않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나 OOO는 그대 OOO을 남편으로 맞아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과 자세로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나의 생활 습관이나 틀 속에
그대를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떼쓰거나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그대를 존중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아는 아이가 되도록 기르겠습니다.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하객을 모신 이 자리에서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신부 OOO

<사랑의 서약> Ver 3.0

신랑 : 타고난 유머센스와 특유의 귀여움으로 아내의 얼굴에 매일 활짝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세상살이에 지쳐 돌아온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 결혼 후에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내를 존중하고 응원해주겠습니다.

신부 :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존중하고 지지해주겠습니다.

신랑 : 담배 값과 술값을 아껴 곧 집을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남편에게만 주지 않겠습니다.

신랑 : 힘들 때 혼자 무리하지 않고 고민을 숨기지 않는, 그런 남편이 되겠습니다.

신부 :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그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신랑 :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험난한 풍랑 속에서도 이 사람의 손은 꼭 잡고 있겠습니다.

신부 : 평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눈으로 바라보며 민주적인 대화를 지속하겠습니다.

신랑 :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임을 명심하고 평생 당신만 알고 살겠습니다.

신부 : 내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임을 명심하고 당신만 알고 살겠습니다.

함께 :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잊지 않고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랑

신부

<사랑의 서약> ver 4.0

신랑 - 앞에 있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여

신부 - 앞에 있는 세상 가장 멋진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서약을 합니다.

신랑 -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맛이 없더라도 꼭 다 먹겠습니다.

신부 - 싸우더라도 아침밥은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신랑 - 항상 당신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신부 - 언제나 당신을 믿으며, 존중하겠습니다.

신랑 -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신부 -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같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신랑 - 오래오래 살아서 마지막까지 지켜주겠습니다.

신부 - 항상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신랑 - 아름다운 첫 만남을 기억하고,

오늘의 행복이 당신 덕분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언제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남편으로 남을 것이며,

행복한 가정과 미래를 이룰 것을 이 자리에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랑

신부

<사랑의 서약> ver 5.0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맹세 합니다. – 함께

나무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서로의 옆을 지키겠습니다. – 함께

다정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 신랑

라(러)블리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 신부

마음을 자주 표현하겠습니다. – 신랑

바가지는 적당히 긁겠습니다. – 신부

사랑 표현은 자주 하겠습니다. – 신랑

아껴주며 서로 존중하겠습니다. – 신부

자식은 둘을 꼭 닮은 아이, 아들/딸 구분 없이 둘을 낳아 잘 키우겠습니다. – 신랑

차디찬 한겨울 같은 위기가 와도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 신부

카드는 적당히 긁고 알뜰살뜰 살겠습니다. – 신랑

타인의 말보다 서로의 말에 더 집중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 신부

파이팅 해서 4년 안에 내 집 장만 하겠습니다. – 신랑

하객 분들 앞에서 저희 두 사람 이 서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 함께

20 년 월 일

신랑 신부

<사랑의 서약> ver6.0

신랑

처음 본 순간 당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랑 딱 한 달만이라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아니 백일만이라도.. 아니 딱 80년만… 했던 간절함이 더하고 더해, 나 정현일은 평생의 반려자를 맞이하는 이 성스러운 자리에
당신 OOO와 두 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며 평생 영원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함께 일 때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당신에게 다짐합니다.
나보다는 당신을 먼저 배려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 순간의 다짐을 평생 기억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기분 좋은 얼굴에 즐거운 마음을 갖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을 양가 부모님과 하객을 모신 이 자리에서 서약합니다.

신부

바라고 바라면 꼭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습니다.
가슴 속에 품어왔던 나의 이상형에 딱 맞는
당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결같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 내 옆의 당신은 참 한결같았습니다.
당신, OOO의 한결같은 그 모습과
한결같은 그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나 OOO는 평생 당신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순간의 다짐을 평생 기억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가장 빛나는 별처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랑신부

<사랑의 서약> ver 7.0

신랑

우리 결혼하면
치약은 중간부터 눌러서 안짜고
꼭 아래쪽부터 짤꺼에요
같이 외출할 때
당신이 화장하고 옷 입느라 시간이 걸려도
현관에서 짜증부리지 않을 거고
일요일 날 당신이 오전 내내 자느라고 밥 안주면
난 알아서 짜장면 시켜먹을께요
양말 두 켤레 사는데
백화점을 다섯 번 돌아도 화내지 않을께요
또 과음해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절대 바람 피는 짓은 안할께요
어늘 날 갑자기, 당신이 괜히 결혼했다고 짜증부리면
당신 도대체 뭐냐고 화내기 보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항상 배려하며 살께요
사랑합니다.
20 년 월 일
신랑

신부

우리 결혼하면
당신이 양말을 뒤집어 벗어놔도 뭐라 하지 않을께요
대신 뒤집힌 채로 빨테니까 뒤집어서 신어요
일요일 날
당신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일부러 깨워서 쓰레기를 버리라고
심부름 시키지 않을께요
대신 낮잠에서 깨면 민린 집알일,
설거지는 도와줘야해요~
바쁜 회사생활이지만
취미생활 하나 정도는 같이 하도록해요
또, 백화점 백바퀴 돌지언정
충동구매는 하지 않을께요
연락하라고 절대 핀잔 주지않고
항상 존경하며 살께요
사랑합니다
20 년 월 일
신부

<사랑의 서약> Ver 8.0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사랑의 서약을 합니다. – 함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 신랑

힘들고 지친 당신이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신부

내가 힘들고 외로울때 나의 손을 잡아줄 당신을 존경 하겠습니다–신랑

서로의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 신부

당신의 눈감는 그 날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주겠습니다. – 신랑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며 나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 신부

어떤 큰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때론 매서운 고난이 다가와도 서로의 손을 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 신랑

둘이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 줄 거라 믿습니다. – 신부

아름다운 첫 만남을 기억하며 오늘 이 행복이

당신 덕분이라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러 모여주신

여러분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 함께

20 년 00월 00일

신랑 신부

<사랑의 서약> Ver 9.0

[신랑 낭독]

나 000은 그대 000를 아내로 맞이함에 있어,

지금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장이란 이름으로

신의와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 할 것이며,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신부낭독]

나000는 그대000을 남편으로 맞이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대의 동반자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주변이 더욱 밝아 질수 있도록,

한 사람의 아내로서 도리를 다 할 것을 맹세합니다.

[신랑낭독]

우리가 서로의 세계에 속한 것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그 어떤 행복도, 삶이 주는 무게감도 함께하는 이길을 선택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서약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신랑

신부

<사랑의 서약> Ver 10.0

(신랑)
내가 당신에게 웃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손짓과 우스운 표정보다
내 마음속에 흐르는 당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당신의 생활 속에 즐거움이 되어
당신의 삶의 미소가 되길 원합니다.

(신부)
내가 당신에게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백 마디 맹세와 말뿐인 다짐보다
내 가슴 속에 흐르는 당신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당신의 생각 속에 미더움이 되어
당신의 삶의 동반자가 되길 원합니다.

(신랑)
내가 당신에게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구름 같은 신기루보다
내 생활 속에 흐르는 당신을 향한 진솔한 사랑이
당신의 신앙 속에 닮아감이 되어
당신의 삶에 이정표가 되길 원합니다.

(신부)
내가 당신에게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웃을 수 있고
나와 함께 믿음을 키우며
나와 함께 소망을 가꾸어
우리 서로 마주보고 사는 세상

(신랑) 나 김태준은
(신부) 나 이수련을
(신랑) 신부 이수련은
(신부) 신랑 김태준을

(같이)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항상 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할 것이며,
서로의 기쁜 일과 힘든 일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당신을 지켜 주는
든든한 남편이/아내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신랑　ooo　/ 신부 ooo

<사랑의 서약> Ver 11.0

(신랑)

나 김민준은 주민서를 아내로 맞아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며

당신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당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할 것이며

영원히 당신의 남편으로서

당신만을 위해 육체적, 정신적 순결을 유지하겠습니다.

(신부)

나 주민서는 김민준을 남편으로 맞아

당신의 이성과 심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당신에게 내어 드리며

당신께 용서 받기에 주저하지 않고

당신을 용서하기에 게을리 하지 않으며

항상 당신의 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4월 24일

신랑

신부

<사랑의 서약> Ver 12.0

[신 랑]

나는 당신에게

내 꿈을 연결합니다.

내 꿈에 당신의 믿음을 얹어주십시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나는 그대와 함께 할 것이며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그대의 인생에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당신과 함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신 부]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연결합니다.

내 삶은 온전히 당신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 때

우리는 더 행복할 것 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 때

나는 당신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당신과 함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신랑

신부

<사랑의 서약> Ver 13.0

나000는 000을 신부로 맞아 다음 사랑을 시킬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 합니다. 하나. 보증이나 담보는 절대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 하루에 한 번 이상 애정표현을 꼭 하겠습니다. 하나. 아내가 만든 밥을 부정하지 않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나. 외박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여자보기를 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하나.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나000는 000을 신부로 맞아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남편으로써 아내와 조화를 이루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 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신랑	나000은 000를 신랑으로 맞아 다음 사랑을 지킬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 합니다. 하나. 아침밥은 꼭 챙겨주겠습니다. 하나.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남편의 말을 항상 귀담아 듣겠습니다. 하나. 운동을 꾸준히 하여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아빠 닮은 붕어빵을 만들어 황금이어로 키워보겠습니다. 하나. 끝까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나000은 000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내로서 남편과 조화를 이루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 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신부

<사랑의 서약> Ver 14.0

나, 000는 000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삶이 아름다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슬프고 괴로워서 삶이 지겹고 원망스러울 때에도
젊고 건강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늙고 병든 당신의 주름진 두 손을 잡을 때에도
생기 있고 밝고 맑은 당신의 두 눈을
보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삶에 지쳐 힘들고 우울함에 눈물고인
당신의 두 눈을 바라 볼 때에도

어떠한 시간, 어떠한 환경, 어떠한 모습에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품어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 000과
함께 할 것임을 회중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 000은 000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당신이 존경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존경할 수 없는 때에도 당신을 존경하며
당신이 믿음직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믿음직스럽지 못할 때에도 당신을 믿고 신뢰하며
당신이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소망을 갖고 바래주며
당신에게 순종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께 하듯 순종하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돕는 자로서 당신과
제가 온전히 하나 됨에 힘쓸 것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신랑
신부

<사랑의 서약> Ver 15.0

신부에게 약속합니다.

나 서준수는 김은솔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 보증이나 담보는 절대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 배 나온 남편이 되지 않기 위해 꾸준희 운동하겠습니다.

하나.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내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겠습니다.

지금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여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을 여러분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신랑에게 약속합니다.

나 김은솔은 서준수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 합니다.

하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편의 아침밥은 꼭 챙겨주겠습니다.

하나. 내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결혼 후에도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나. 남편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 하겠습니다.

지금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며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을 여러분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사랑의 서약> Ver 16.0

하나, 나 윤두준은 우리가 하나됨에 감사하며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 나 박도은은 하늘이 맺어 주신 인연에 감사하며
당신의 편안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하나, 나 윤두준은 당신이 눈 감는 그 날 까지
당신의 아름다움을 지켜주겠습니다.

하나, 나 박도은은 어렵고 힘겨울 때 언제나 내 손을 잡아 줄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

나 윤두중은 언제나 손 내밀면 닿을 듯한 그 곳에 서 있겠습니다. 힘들 때면 내가 먼저 그대를 안아 주겠습니다.

(함께) 이 결혼을 허락하고 축복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서로 눈 감는 그 날 까지 서로의 곁을 지킬 것을
부모님과 하객 여러분 앞에서 서약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신랑

신부

<사랑의 서약> Ver 17.0

[신랑]

이런 남편이 되겠습니다.

피곤함에 지쳐서 당신이 걷지 못한 빨래가
그대 향한 그리움처럼 펄럭대는 오후,
곤히 잠든 당신의 방문을 살며시 닫고
강신의 속옷과 양말을 정돈해 두겠습니다.

때로 구멍 난 당신의 양말을 보며
가슴 뻥 뚫린 듯한 당신의 사랑에
부끄러운 눈물도 한 방울 흘리겠습니다.

능력과 재력으로 당신에게 군림하는 남자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든든한 쉼터, 한 그루 나무가
되겠습니다.

여름이면 그늘을,
가을이면 과일을,
겨울이면 당신의 몸 녹여 줄 장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 오는 봄
나는 당신에게 기꺼이 나의 그루터기를 내어
주겠습니다.

날이 하얗게 새도록 당신을 내 품에 안고
하나 둘 돋아난 시린 당신의 흰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당신을 꼬옥 안아 주겠습니다.

[신부]

이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눈이 오는 한 겨울에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퇴근 무렵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 사 들고 당신이 내리는
버스정류장에 서 있겠습니다.

때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로,
때로는 만개한 소국의 향기로,
때로는 진한 향수의 향기로,
당신이 들어오는 집이 향내 나도록 만들겠습니다.

늘 사랑해서 미칠 것 같은 아내가 아니라
아주 필요한 사람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 같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지혜와 슬기로 당신의 앞길에 아주 밝은 한 줄기의
등대 같은 불빛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호롱불처럼 당신의 가는 길에 빛을 드리울 수 있는….

그래서
당신과 내가 흰 서리 내린 인생의 석양 길에…

"당신은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소.
당신을 만나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배웠소."
이런 말을 듣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사랑을 기다리며, 그 사랑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대를 웃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며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그대의 마음이 같음을 알기에
그대 생각에 눈물과 웃음이 나곤하지요

내 사랑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다 느껴지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그대를
내 마음의 하나인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부모님과 여러 하객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신랑

누군가에게 한 없이 기대고 싶었던 그때

당신은 나에게 커다란 나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당신 곁에서 그렇게 기대어 쉬며 살고 싶어졌고

당신의 마음 또한 쉬게 하며 살고 싶어졌습니다.

내 마음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 곁에 있다면

힘든일도, 서러운일도, 슬픈일도, 억울한 일도

모두 거뜬히 견디어 낼 수 있을 겁니다.

나또한 당신의 마음이 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힘듦과 서러움과 슬픔과 진심을

이해하고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당신 옆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부모님과 여러 하객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신부

서로 마주보며 미소 지을수 있는 사람

내 차디찬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행복을 나눌 사람

나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하루 하루로 만들어 줄

유일한 나의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나 는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신부 를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며..

내일은 더욱 더 사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랑

이제 한평생을 이렇게 손잡고 함께 가야 할 사람

나의 정신없는 수다와 삶의 힘듦, 일상의 피곤함..

그리고 대책없는 내애교들을 언제나 묵묵히 받아주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에게 아빠도 되어주고 오빠도 되어주고 때론 친구가 되어주며

언제나 사랑스러운 남자가 되어주는

유일한 나의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이 꼬불거리는 산길같은 인생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멋진 신랑 올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며..

내올은 더욱 더 사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부